

<원천강본풀이>의 본디 모습 연구

권복순*

《차 례》

1. 들머리
2. <원천강본풀이>를 푸는 열쇠
 - 2.1. 제목의 뜻
 - 2.2. 신직과 ‘원천강’
3. <원천강본풀이>의 뿌리 찾기
 - 3.1. 들어온 이야기
 - 3.2. 본디 이야기
4. 신화의 적층성
5. 마무리

〈요약문〉

이 연구는 <원천강본풀이>의 덧입힌 부분을 걷어내고 본디 모습을 탐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본격적 연구에 앞서 제목인 ‘원천강’의 뜻을 탐색하였다. 신화가 발생한 원시 애니미즘적 사고에서 자연과 인간은 미분화상태에서 분화상태로 이행하는데, <원천강본풀이>에서 제목은 이와 같은 신화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반영한다. 따라서 원천(原泉)은 주인공이 태어난 근본을 뜻하는 동시에 직능을 행하는 신직의 이름이기도 하다. 원천(原泉)의 뒤에 붙은 강(綱)도 원천(原泉)과 같은 뜻으로 중의적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화 선행설의 입장에서 신화의 본디 모습에 다가서고자 하였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다. 먼저 신화에 들어온 삽화를 걷어내어 변화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민담인 구북여행담의 일부가 신화에 삽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본디 이야기인 출생과 신직 부분이 남는다. 출생 화소에서는 제주도의 ‘당신화’나 ‘탐라국 기원설화’에서 볼 수 있듯이 남방계 신화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신직 화소에 있어서 역사적 산물로 추정되는 수직적 질서관을 걷어내면 수평적 질서관이 자리잡고 있다. 수평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신직의 특성은 〈삼공본풀이〉의 주인공인 가문장아기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가문장아기는 신직 좌정에 있어서 타자에 의한 부여가 아니라 스스로 좌정하는 화생관이 바탕이 되어 있다. 〈원천강본풀이〉의 오늘이와 사계절의 관계는 자식과 부모라는 신화적 상징성으로 나타나는데, 오늘이가 자신의 원천인 부모국에 도달하여 사계절의 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원천신’으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본다.

〈원천강본풀이〉의 본디 모습을 재구하는 작업은 신화의 역사성에 바탕을 둔다. 역사성은 연속과 단절을 거듭한다. 오늘이와 사계절의 관계는 우주 순환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지니지만, 이외에 들어온 민담이나 북방계 요소는 단절성으로 작용한다.

주제어: 애니미즘, 자연, 인간, 미분화, 분화, 역사성, 단절, 연속

1. 들머리

이 글은 〈원천강본풀이〉가 연속과 단절의 역사적인 변화를 거듭한 산물임에 주목하여, 원천강의 뜻과 뿌리를 찾아내어 신화의 본디 모습에 다가서고자 한다. 〈원천강본풀이〉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학자에 의해 채록된 자료로서, 지금은 곳의 현장에서 사라진 본풀이에 해당한다.¹⁾

1) 이 자료는 1930년부터 33년까지 제국학사원 학술연구비 보조를 받아 한반도

이 자료를 엮은 赤松智城·秋葉隆에 의하면 “본래 조선의 무속은 전통적으로 조선과 중국의 문화적 관계로 인하여 이 습속의 내용에도 현저하게 불교와 도교 기타 남방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타민족의 살만교와는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²⁾”고 하였다. 여기서 타민족이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민족을 뜻하는데 중국에서는 남쪽에 분포하여 있는 소수민족들의 전통종교를 무교(중국어: 우자오)라 지칭하고 북쪽의 소수민족의 전통 종교는 살만교(薩滿教, 중국음: 사만자오)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³⁾

이 신화는 채록 당시에 본토의 다른 자료와 함께 제주도 신가⁴⁾에 포함되어 있던 자료로서, 오늘날과 같이 일반신이나 당신화, 조상신화의 구분 없이 실려 있다. 이 자료를 비롯하여 제주도 신가에는 〈세민황제본풀이〉가 실려

전체의 요지를 현지답사하고 1935년부터 36년까지 복부보공회(腹部報公會)에서 출판비를 원조받아 자료편인 〈상권〉은 1937년 6월, 연구편인 〈하권〉은 1938년 10월에 연이어서 간행된 자료로서, 〈상권〉은 무녀의 제사. 즉 굿 때에 부르는 노래가락(神歌)과 축사(祝詞)를 수록한 자료집이고, 하권은 그 이외에 기타 다른 문헌 및 현지 조사로 얻을 수 있었던 무속의 전반적인 연구를 집성하였다. 노랫가락과 축사는 대부분 구전에 의해 전승되었기 때문에 직접 채록한 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며 이것을 일본어로 바꾸었다. 〈원천강본풀이〉는 상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 본풀이를 비롯하여 서귀본향당본풀이, 토산당본풀이, 초감제, 원턴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신중도풀이, 군농본풀이는 오늘날 일반신본풀이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다. (赤松智城·秋葉隆 공저, 심우성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 上』, 동문선, 1991)

2) 赤松智城·秋葉隆 공저, 심우성 옮김, 위의 책, 5쪽.

3) 조홍윤, 『한국 무(巫)의 역동적 이해』, 『상상력의 자리찾기: 한국문화의 상상력』, 백의, 1999, 17쪽.

4) 赤松智城·秋葉隆은 용어 사용에 있어서 제주도 무가라 하지 않고 제주도 신가라 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 현재 학계에서는 ‘서사무가’라 하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를 ‘무속신화’라 하고 있다. 이 용어에 관해서 조홍윤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巫)와 관련된 용어는 무복(巫服), 무병(巫病), 무가(巫歌), 무구(巫具)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용어는 영어식 용어를 직역한 것이라고 하면서 무당들은 그 용어에 무(巫) 대신 신(神)자를 넣어 사용한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무를 보고자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달린 문제로서 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무당의 것으로 이해한 반면, 무당들은 그것을 신령의 것으로 받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채록 원문에 ‘제주도 신가’라 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홍윤, 『한국 무(巫)의 역동적 이해』, 『상상력의 자리찾기: 한국문화의 상상력』, 백의, 1999, 49쪽)

있는데, 오늘날 굿판에서는 이 두 신화를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 이 신가들은 연행되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는 굿판에서 불렸을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굿은 개인을 위한 기복신앙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인간을 둘러싼 공동체의 관심에서 비롯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굿의 대부분은 개인을 위한 일반 굿에 치우쳐 있고 초월굿이나 나라굿은 사라진 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사무가를 비롯한 당신화에서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원천강본풀이〉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우주 기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도 밝혔듯이 이 신화는 조선 무속 가운데 제주도 신가에 속하는 자료로서 북방 타민족의 샤머니즘과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자료에 속한다. 또한 제주도 신가로서 보기 드물게 우주 기원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시 신화의 고유성을 살펴볼 수 있을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주로 신화소나 신직의 기능을 중심으로 조명하였다.⁵⁾ 이러한 시도는 초창기 소외되어 있던 신화의 연구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크다. 그러나 신화의 역사성을 배제한 채 공식적 의미 도출에만 이르고 있어 신화의 본질성을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또한 자료적 측면에서 두 유형으로 전하는 〈원천강본풀이〉를 같은 유형으로 본 논의가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이 두 편은 제목만 같을 뿐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같은 종류의 신화라 보기 어렵다. 또한 구복 여행담인 민담에서 신화로 이행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내세우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겼다.⁶⁾ 한편 제의적 측면⁷⁾, 시간적 측면⁸⁾, 기능적 측면⁹⁾에서 나

5) 장주근, 「설화편」,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南道民俗學의 進展』, 태학사, 1998.

6)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神名에 대한 再考를 중심으로-」, 『한국 무속학』 V20, 2010, 한국무속학회, 251-277쪽.

7)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웅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논문, 2002.

8) 조홍윤,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 민속

은 성과는 연구의 저변 확대를 꾀하였다는 점에서 뜻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통시적인 측면에서 일제시대 채록한 신화의 덧입힌 적층성을 걷어냄으로써 신화의 본디 모습에 다가서고자 한다.

연구 대상 자료인 『朝鮮巫俗의 研究』¹⁰⁾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 정책적으로 조사한 자료로서 상권은 자료편, 하권은 연구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연구편에 해당하는 자료는 일제의 의도적인 정책이나 연구자의 주관적 시각이 있을 수도 있으나, 상권에 해당하는 자료편은, 저자가 이 조사를 위해 수년간 90여 개소에 이르는 현장조사를 통해 채록한 자료이기 때문에 비교적 연구 자료로서의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원천강본풀이〉를 푸는 열쇠

2.1. 제목의 뜻

본격적 연구에 앞서 용어에 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무속신화의 주내용은 신의 근본을 풀이하는 설명담이다. 이 설명담에서 핵

연구』, V 23, 남도 민속학회, 2011, 409-436쪽.

9) 고은임, 『원천강본풀이연구: 오늘이 여정의 의미와 신화적 사유』, 『관악어문연구』제35집, 2010, 201-220쪽.

10) 저자가 엮은 자료 중의 제주도 신가에는 〈원천강본풀이〉를 포함하여 16편을 수록하고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 서귀본향당본풀이 제2 토산당본풀이 제3 초감제 제4 초공본풀이 제5 이공본풀이 제6 삼공본풀이 제7 세경본풀이 제8 천지왕본풀이 제9 원턴강본풀이 제10 세민황제본풀이 제11 명진국생불할망본풀이 제12 신중도푸리 제13 체사본풀이 제14 칠성본풀이 제15 군농본풀이 제16 문전본풀이인데, 이 중에서 오늘날 제주도 일반신 열두 본풀이에 해당하는 본풀이는 제4, 제5, 제6, 제7, 제8, 제11, 제13, 제16의 8편에 해당하는데, 이후에 부가된 본풀이는 마누라본풀이, 명감본풀이, 지장본풀이, 칠성본풀이가 있다. 제9와 제10은 현재 사라진 본풀이에 해당하며, 제1과 제2는 당신본풀이, 제3은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등 넓은 의미의 본풀이를 이룸이며 제15는 조상신본풀이로 구분하고 있다.

심어는 주인공의 이름이나 신직에 해당한다. 본풀이의 경우 제목은 대부분이 두 핵심어를 따와서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원천강본풀이〉도 이러한 특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채록 원문을 보면 이 신화는 ‘원천강본풀리(袁天綱本解)’라고 되어 있다. ‘本解’가 본풀이이니 앞에 붙은 원천강의 뜻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선 논의에서는 ‘원천강’이 당나라 시대의 인명이나 점서를 뜻하는 고유명사라고 주장하는데¹¹⁾ 이 경우 원문의 내용과 시대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즉 이 신화가 우주 기원 신화인 만큼 당나라 시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천강’을 당나라 시대의 사람이 아닌 신화의 주인공이나 신직과 관련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의 이름이 오늘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오늘이는 시간의 뜻을 지닌 일반명사이자 고유명사이기도 하다. 그 뜻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우주의 변화를 말한다.¹²⁾ 과학 지식이 발달하지 않는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우주의 물리적 현상에 대해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상력이나 직관의 힘으로 풀려고 했을 것이다.

고대인들의 숭배사상은 오늘날 고등 종교에서와 같이 유일신이나 창조신의 존재가 있다고 보는 관점과 거리가 있다. 그들은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사물 등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¹³⁾ 원시 신화시대에 땅은 애니미즘의 대상이며 땅에서 인격체가 출생하는 것은 이러한 신화적 표현의 상징성이다. 모든 어린이들과 대부분의 고대 철학자들은 사물의 이름(분명히 주관적이고

11)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神名에 대한 再考를 중심으로-』, 『한국 무속학』 V20, 2010, 한국무속학회, 251쪽.

12) 태양계에 속한 지구는 스스로를 축으로 한 바퀴씩 도는 동시에, 주기적으로 1년에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데, 곧 자전과 공전의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지구가 자전할 경우 낮과 밤이 생기고, 공전할 경우 사계절의 변화가 있다. 따라서 하루나 사계절은 태양이 중심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의 움직임으로 인해 비롯되는 현상이다.

13) 우주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은 애니미즘적 사상이며 이 가운데 동물에 혼이 있다고 믿는 것은 토테미즘 사상이다.

단순히 마음속에 있을 뿐이며 문화마다 크게 다른)을 그 사물에 대한 내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물의 청각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한다.¹⁴⁾ 주인공이 땅에서 솟아나고, 이름이 오늘이라는 것은 본토 신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화소다. 들판에서 솟아난 오늘이는 신성한 대지라는 내재적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대지가 인격체인 소녀로 화할 수 있음은 원시 시대 애니미즘 사고의 진화론을 반영한다.

오늘이라는 이름은 공간의 연속선상에서 시간성을 내포한다. 공간과 시간의 관련성은 신화시대 축적을 거듭한 진화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대지로부터 출현한 소녀가 오늘이라는 등식은 태곳적 미분화한 공간과 시간의 모태에서 시간이 공간에서 분리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화의 진화 과정은 환경이나 그 밖의 영향으로 다분히 다른 양상을 띠는데 남방계 신화권에 속하는 제주도에서는 북방계와 다른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 제주도 고유 신화인 삼성신화나 당신화에서 보듯이 제주도의 신화 주인공들은 애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난다.

원문에서 ‘원천강’이라는 제명(題名)은 袁(웃길 원)과 天(하늘 천)으로 성과 이름의 고유명사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료의 채록시기가 일제강점기인 만큼 채록할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물로 보인다. 이 무속에 함께 실린 〈세민황제본풀이〉도 마찬가지이다. 〈세민황제본풀이〉 주인공인 세민황제는 당나라 황제 이세민의 이름이다. 이 두 신화의 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언급한 당대 시기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신화이므로 후대 인물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제목인 ‘원천강’을 당나라와 관련짓는 것은¹⁵⁾ 신화의 형성 시기를 고려할 때 이치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4) 조지프 캠벨, 이진구 옮김, 『신의 가면1 원시 신화』, 까치, 2003, 107쪽.

15) 원천강을 당대의 복자나 원천강화주역(袁天綱畫周易)을 뜻한다고 한 이래로 이후의 논자들은 대체로 이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장주근, 『설화편』,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2.2. 신직과 ‘원천강’

〈원천강본풀이〉를 신직과 관련지을 경우, 〈문전본풀이〉¹⁶⁾, 〈세경본풀이〉¹⁷⁾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원천강’이 신직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문에서 ‘원천강’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을 보면 ‘오늘이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와 ‘옥황의신녀로화한오늘이가절마다덴기며,원천강을등사하게하였다’의 구절에서 나온다. 첫 번째 경우는 오늘이 아버지가 주체요 두 번째 경우는 오늘이가 주체이다. 이 두 경우에서 의문스러운 점은 ‘원천강’을 둘러싼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원천’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遠天’, ‘源泉’의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 앞의 것은 ‘하늘에서 멀리 떨어진’의 뜻이며 뒤의 것은 ‘만물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이 신화에서는 맥락상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근거로는 뒤에 붙은 강(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강(綱)은 ‘벼리 강’으로, 이 때 벼리는 ‘그물의 위쪽 코를 맨 굵은 줄’¹⁸⁾을 뜻한다. 즉 그물이 시작하는 맨 처음이라는 것이다. ‘源泉’은 ‘물이 흐르는 근원, 수원(水源). 전(轉)하여 사물이 생기는 근원, 천원(泉源)’을 뜻한다. 이 때 源의 어원을 보면 ‘形聲자로서 原은 근원의 뜻. 뒤에 原이 평평한 들을 나타내게 되자, 水를 덧붙여, 근원의 뜻을 분명하게 했다.’¹⁹⁾ 고 나와 있다. 여기서 ‘원천강’은 애초의 뜻인 근원 즉 원천(源泉)으로 보는 것이 마땅한 듯하며 그 뒤에 붙은 ‘綱’도 같은 뜻으로 겹쳐 썼다고 볼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에서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으로 오늘이

16) ‘문전본풀이’에서 문전신은 남선비의 일곱아들들을 뜻하는데 막내아들인 녹디생인이 일문전(상방-마루방의 앞쪽 문신)에 해당한다. 이 신화에서의 ‘일문전(一門前)’은 한자로 표기할 만한 어휘인데, ‘문 앞’이란 뜻이 아니라 (門神)을 뜻한다.

17) 세경신은 삼위신을 일컫는데 상세경인 문도령과 하세경인 정수남, 그리고 중세경인 자청비가 있다. 이 삼위이면서도 일체의 신을 세경신이라 한다.

18)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民衆書林編輯部, 2008.

19) 『漢韓大事典』, 民衆書林, 民衆書林編輯部, 2008.

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오늘이는 자신의 이름도 모르는 존재로서 사람들이 발견하고 지어주었다 한다. 사람들은 소녀를 발견하자 자신들이 발견한 시간을 기준으로 오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와 같은 장면을 상상한다면, 백성들이 오늘이를 발견한 것은 하나의 사건이며 오늘이 또한 사람들에게 발견됨에 따라 의미있는 존재로 거듭난다.

사람들이 별판에 홀로 있는 소녀에게 오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사람들 가운데 오늘이가 태어난 장면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이 신화의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추측건대 인간 창조 신화나 혹은 창세 신화인 천지개벽, 물과 불의 기원 신화 등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원천강본풀이〉의 뿌리 찾기

3.1. 들여온 이야기

본토나 제주도에서 사계절의 기원 신화와 같은 우주 내용에 관한 신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천지왕본풀이〉와 같은 일월조정 신화가 있긴 하지만 일월의 질서를 세우는 내용이므로 엄격하게 따지면 이 신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원천강본풀이〉를 연구함에 있어서 자료의 빈약성으로 말미암아 기존 연구에서는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흔히 민담인 「구복여행담」과 비교하여 왔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두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웅이야기는 영웅의 일대기라는 구조를 띠고 있지만 신화는 민담과 달리 신성성을 요구한다. 신성성을 갖추기 위한 서사 장치로는 주인공의 출생 근원이나 신적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본토의 구복여행담이 제주도 저승할망의 신화로 재편되었다가 주인공이 원천강으로 바뀌면서 〈원천강본풀이〉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는

데²⁰⁾ 이러한 전환 과정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화와 민담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구복여행담 중에서 〈원천강본풀이〉와 유사한 유형과 견주어 보기로 하겠다.

1) 원천강본풀이

- ① 옥같은 계집애가 적막한 들에서 나타나니 사람들은 누구냐고 묻다.
- ② 소녀는 자신은 강남들에서 솟아났으며 아무 것도 모른다고 대답하다
- ③ 소녀는 학조가 나타나 야광주를 물려주어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하다
- ④ 여러 백성들은 소녀에게 ‘오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다
- ⑤ 박이왕의 어머니 백씨부인은 오늘이에게 부모국이 원턴강이라 일러주다
- ⑥ 오늘이가 원턴강으로 가는 도중에 장상이집에 가서 유숙하다
- ⑦ 장상은 오늘이에게 자신이 왜 글만 읽어야 하는지 까닭을 알려주라고 하다
- ⑧ 오늘이는 연꽃못가의 연꽃남기를 만나 부모국으로 가는 길을 묻다
- ⑨ 연꽃은 상가지에만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아니 피는 팔자에 관해 알아달라고 하다
- ⑩ 오늘이가 천하대사(天下大蛇)를 만나 길을 물으니 승천 못하는 까닭을 알려달라고 하다
- ⑪ 오늘이가 매일을 만나 길을 물으니 자신의 팔자에 대해 물어달라고 하다
- ⑫ 오늘이가 옥황시녀를 만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 그들은 원턴강 입구까지 데려다주다
- ⑬ 오늘이가 원턴강에 가서 부모를 만나니 부모는 춘추동 사시절이 있는 곳을 보여준다
- ⑭ 오늘이가 여정에서 부탁받은 일들을 말하니 부모가 그 해결책을 알려주다 장상이와 매일은 부부가 되면 만년영화를 누릴 것이다

20) 〈원천강본풀이〉에서 오늘날은 신녀가 되어 남을 돕는 무당(신의 다른 이름)이 되는 데 반해 구복여행담에서 석승은 부인과 자기 자신의 복을 누린다는 점을 들어 이타적 인간과 이기적 인간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제주도 전설 중에 〈저승할망〉편을 들어 이 신화가 본토의 구복여행담과 유사한 유형으로 보고 소년이 저승할망이 있는 곳을 다녀와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인물로 전환한 점을 들고 이 여행담의 주인공이 원천강이라는 주인공을 만나면서 제주도 〈원천강본풀이〉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김혜정, 앞의 글, 169쪽)

〈원천강본풀이〉의 본디 모습 연구

연꽃은 초면의 사람에게 웃가지의 꽃을 꺾어주면 다른 가지에 만발할 것이다

대사는 초면의 사람에게 야광주를 두 개 주면 용이 될 것이다

너는 야광주와 연꽃을 받으면 신녀가 될 것이다

오늘이가 돌아오는 각각의 대상들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니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다

⑮ 오늘이는 옥황의 신녀로 화하여 인간에 강림해야 원천강을 등사하다

2) 복을 타러 간 아이

① 가난한 사람이 환갑을 맞아 막내아들을 불러 사람들에게 무엇을 대접해야 할지 물어보다

② 막내아들이 하늘에 복 타가지고 환갑을 하자고 하다

③ 복을 타러 가는 도중에 막내아들이 처녀를 만나 처녀를 얻어먹다

④ 처녀가 막내아들에게 자신만 살고 식구 스무 명이 죽은 까닭을 알게 해달라고 부탁하다

⑤ 둘째 처녀를 만나다

⑥ 하늘에 다 왔을 때 천년 묵은 구렁이가 등천을 못한 까닭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다

⑥ 막내아들은 복 타는 데 가서 각각 부탁받은 일들을 해결하다
처녀는 여의주가 많아서 다른 식구들이 죽었으니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처녀는 엽전 독을 파내면 괜찮다
구렁이는 처녀에게 받은 여의주를 주면 등천할 수 있다

⑦ 막내아들은 처자 둘을 얻어 장가들고 부자가 되어 아버지 환갑을 치르다²¹⁾

논의의 편의를 위해 1)과 2)의 서사뼈대를 몇 덩이로 묶으면 1)에서 ①-④은 출생 ⑤-⑫는 시련 ⑬-⑭ 시련극복 ⑮는 신직 좌정으로 묶을 수 있다. 2)에서는 ①-⑥은 시련 ⑦은 시련극복이다. 1)과 2)에서 공통점을 추려서 들어내면 〈원천강본풀이〉의 출생과 신직 부분이 남는다. 따라서 이 신화소가 〈원천강본풀이〉의 본질성을 밝힐 수 있는 단서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두 이야기에서 시련과 시련 극복에 이르는 과정은 같으나, 주체인 주인공의 행위 목적이 다르다. 1)은 주인공이 자신의 근원을 찾는 것이

21) 『한국구비문학대계』 7집 10책, 518-521쪽, 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 설화.

목적이지만 2)는 부모를 위한 효의 실행이 목적이다. 따라서 각각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도달하고자 하는 여정의 끝이 다르며 그 곳에서 만난 인물도 다르다. 신화의 주인공이 간 곳은 사계절이 존재하는 ‘원천강’이지만 소년인 간 곳은 ‘하늘’이다. 각각의 주인공들이 목적을 수행하는 도중에 만난 인물들을 고려해 볼 때 삽화별 긴밀성은 1)보다 2)가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원래 있던 신화의 내용에 2)의 내용이 삽입되어 재편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²²⁾

구북여행담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이야기로 전승하면서 신화에 삽입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뺀 남은 조각을 가지고 다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신화의 흔적을 붙들 수밖에 없다.

3.2. 본디 이야기

〈원천강본풀이〉의 본디 모습을 탐구함에 있어 원형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 중의 하나가 앞에서 밝혔듯이 출생과 신직에 관한 화소일 것이다. 우선 출생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중 출생의 내력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신직에 있어서 주목되는 점은 오늘이와 아버지의 기능이 겹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끈으로 신화의 뿌리에 다가가고자 한다.

우선 주인공의 출생에 있어 모호한 점을 든다면 주인공의 근원의 불확실성이다. 오늘이가 자신의 근원을 찾으러 떠난 곳이 ‘원천강’이라면 그 공간은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 ‘원천강’은 공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늘이의 신직과도 관련이 있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신국인 ‘원천강’과 오늘이가 등사하러 다닌다는 ‘원천강’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22) 구북여행담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유럽과 아시아에 분포되어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나타난다. Aarne는 내용 자체도 동양적인 것이므로 아시아 특히 印度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고, AD 430년 경 印度의 Dhammapadakhatha 중 Dhammapada나 중국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장덕순 외, 『口碑文學概說』, 일조각, 1971, 28쪽 재인용)

수 있다.

출생담을 보면 오늘이는 이중 출생을 한 주인공이다. 첫 번째는 들판에서 솟아나며 두 번째는 부모가 등장한다. 즉 오늘이가 들판에서 솟아난다는 것은 자연이 토태인 셈이며, 부모가 있다는 것은 인격화한 인물에게서 태어난 셈이다. 이와 같이 오늘이는 자연과 인격화한 부모에 의해 이중출생을 한 존재이며 이러한 출생의 과정은 다른 신화의 주인공과 다르다.

1) 옥같은계집애가적막한드름에웨로히낫타나니

그를발견한차세상사람들이
어는어찌한아해나묻더라
나는강람드름에서소사났습니다
성이무엇이며일음이무엇이나
나는성명도몰고아모것도몰읍니다
그러하니엇찌하야우금까지살어왔느냐
내가강님드름에소사날 쎬부터
엇편학조가날너와서
한날애를잡어주고한날애를덜혀주며
야광주를물녀주며그리저리살녀주니
오날짜지무사히살어왔습니다.
년령은얼마이나,나희도몰읍니다
이러저리사라마람들이,너는나흔날을몰으니
오날을나흔날로하야일음을오날이라고하라
여러백성들에게일음을지여어더

2) 이리저리덴기다가

박이왕의 어머니백씨부인안테가니
너는노날이가안이나,네오날이올시다
너의부모국을아느냐
몰읍니다,너의부모국은원턴강이라
부모앞혜를가니, 아버지허는말이
엇편처녀가위이곳에왔느냐하니
학이새깃속에서살든 쎬부터
지금까지니난일을모조리말하야들니엿다
부모가귀특하다고칭찬하며

자기자식이분명하다고하였다
그리하여 쏘하는말이
너를나흔날에옥황상제가우리를불러서
원턴강을직히라고하니
어느영이라거역할수업서, 여기잇게되엿스나

1)은 자연에서 출생한 출생담이며, 2)는 인격화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담이다. 제주도나 본토의 신의 경우 주인공의 출생담은 대부분 2)에 속한다. 1)과 2)를 살펴보면, 1)에서 오늘이를 발견한 사람은 백성들이다. 오늘이는 자신의 출생 근원을 알고 있고, 맥락상 탄생에 관여한 발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2)의 내용은 앞과 정반대이다. 백성들이 오늘이에 대해 모르는 것과 달리 백씨부인은 오늘이가 누구인지 알고서 오늘이에게 출생에 대한 정보를 일러 준다. 백씨부인은 오늘이를 만나자 첫마디가 “너는 오늘이가 아니냐” 라는 말에서 이미 오늘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에서 소녀에게 이름을 붙여준 백성들보다 백씨부인은 뒤에 오늘이를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백씨 부인의 말이 끈이 되어 전개 부분의 민담이 삽입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백씨 부인의 서사적 기능은 다음 이야기를 끌어오기 위한 매개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이의 출생 원형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물음이 제기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들판에서 솟아남 2) 양성 부모에게서 태어난 오늘이를 두고 볼 때 둘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1)과 2)는 통시적으로 거쳐오면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이의 출생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격화한 부모에게서 찾기보다는 처음의 출생사건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출생 화소의 흔적은 오늘날 제주도에서 전승하는 당신본풀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 신화는 특성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가 있다. 이 중 보편성과 특수성의 중간에 위치한 신화는 당신화라 할 수 있다. 일반신본풀이는 보편성이

강하며 조상신본풀이는 특수성이 강하다.²³⁾ 여기에서는 제주도 고유성을 함축하고 있는 당신화 몇 편을 제시하여 신화의 바탕을 알고자 한다.

- (1) 산신 일월 조상 백조아기 백조아비 남선발 일뢰중조 서당국서 솟아난 큰부인님. 아기무 을 업개마을청²⁴⁾
- (2) 천지지를 집떠보니 조렛마을에 땅도 창이현이 없구 물도 창이현이 없구 그 마을 굴존 위 쟁만장 불러다 낳은 날은 생산 죽는 날은 물구 장적 호적 문제를 꾸며드리니 돛배오름 세안쌍 받아서 그 마을 찾아한 본도 제관 한집님, 굴국나무 좌정한 옥당부인님 삼분부리 좌 정허신 고씨할마님 서당국서 솟아난 할마님²⁵⁾
- (3) 강남재국 정죽국 안까름서 솟아나신 삼형제가 제주 입도해야 큰성님은 초천관 앞선도 정 중부인이고 증형님은 짐녕 관사전부인 객새전부인 하늘공저 소공저 안음 버은 금책에 쯤이 버은 금붓대 삼천장 베릿돌²⁶⁾
- (4) 한로영산 지질개 백록담 무이동자 유작후 솟아나 천자유합 동문선십 통달하고²⁷⁾

23) 제주도의 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신본풀이에서는 소재적인 차원에서 신화의 원천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가져와서 구성을 했으므로 보편적인 성향이 농후하고, 시대적인 특징과 소재적인 판도를 확인하는 요긴한 본풀이이다. 당신본풀이는 마을의 영웅신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 극복과정을 통해서 마을신으로 단골들에게 받아들여지는지 따지는 것이므로 제주도만의 고유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의 한정성을 가지고 제주도 밖의 인물과 관련을 맺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제한을 극복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조상신본풀이는 집안의 한정되는 사건이나 내용을 주소재로 한다. (김현선, 현용준, 강정식 저,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17쪽)

24)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211쪽. 〈셈잇당 본향본풀이〉: 김오생씨 구송(남무, 53세, 제주시 삼도리 거주, 1959년 8월 채록)

25) 장주근, 위의 책, 212쪽, 〈드리당 본향본풀이〉: 김오생씨 구송

26) 장주근, 위의 책, 217쪽, 〈김녕리 큰당 본향본풀이〉, 이달춘옹 구송(남무, 70세, 제주도 건입리 거주, 1959년 12월 현용준씨 채록 제공)

27) 장주근, 위의 책, 219쪽, 〈세화리 본향본풀이〉: 고대중씨 구송(남무, 43세, 세화리 거주, 1959년 8월 채록)

(5) 아야동쪽 은하장당서 솟아난 금상 날로 베슬 억만명이 대병군사 일시창검
일월 희룡케 거니립던 금상 산집 난수생²⁸⁾

위에서 제시한 신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땅에서 솟아난 존재이나 이 중에서 이중 출생을 거친 신들은 없다. 또한 출생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출생을 주도한 창조신이 없다는 사실이다. 다른 신화와 달리 3)의 인물은 외부에서 들어온 신으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제주도 지역에 들어오면 자생적으로 솟아난 신으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인격으로 나타난 부모는 어떻게 해석해야할까’라는 문제가 생긴다. 당신화의 예를 참고하여 그 내용에 기대어 실타래를 풀 수밖에 없다. 들판에서 솟아난 오늘이는 스스로 자신의 근원을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이가 태어난 이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뜨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개입에 의해 자신의 부모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앞의 내용과 모순이다. 이 대목에서 백씨 부인이 등장하며 구복여행담이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체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구복여행담의 주체는 거의 총각으로 나온다. 총각(아이, 막내아들)은 복을 타기 위해 서천서역국, 옥황상제, 저승할망이 있는 곳으로 떠난다. 그 곳에서 복을 받아 다른 존재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도 금은보화를 얻거나 여인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산다. 이와 같이 주체의 다른 점은 주체의 여정 목적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오늘이의 욕망은 신성한 목적성을 수반하지만 총각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에 그친다.²⁹⁾

오늘이가 솟아난 들판이 신화의 원형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인격화한 부모의 등장은 그 이후 신화의 변화 과정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애초의 신화 뿌리는 원시적 신화관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때 인격화한 부모나 옥황상제의

28) 장주근, 앞의 책, 222쪽(금상본풀이).

29) 神話의 神聖性은 위대하거나 숭고한 行爲로서 성립된다. 行爲와 事件으로 나타나지 않은 神聖性은 아무런 神話의 意義도 지니지 않는다. 위대하거나 숭고한 行爲는 반드시 特異해야 하고 日常生活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卵生, 棄兒, 짐승의 보호, 또는 漂流, 불가능에 가까운 試鍊의 극복, 거대한 勝利 등은 흔히 발견되는 특이한 요소들이다(장덕순, 앞의 책, 31쪽).

등장은 역사 시대 이후에 들어온 신화소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신화의 본모습을 찾으려면 그 이후의 신화소를 걷어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천신사상은 언제부터 영향을 끼쳤을까에 대한 연원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천신사상은 한반도 북쪽 지역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지만 역사시대에 들어와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제주도 신화의 재편 과정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제주도 신화의 주인공들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화소는 신화시대의 제주도의 고유성을 찾아볼 수 있는 근거라 할 수 있다.³⁰⁾ 구복여행담에서 볼 수 없는 이 신화소는 삼성 신화나 그 밖의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처음에는 인물이 없었는데 세 신인(神人)이 땅으로부터 솟아 나왔다. 지금 진산(鎭山) 북쪽 기슭에 모흥(毛興)이라는 구멍이 있으니, 이곳이 세 신인이 나온 땅이다. 맑이는 양을나이고 다음은 고을나이고 세 번째는 부을나인데, 세 사람이 궁벽한 황무지에 돌아다니며 사냥하여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고기를 먹고 살았다.”³¹⁾

탁라(毛羅)는 남해 가운데의 섬나라이다. 탁라는 처음에 군장(君長)이 없었다. 고을나(高乙那), 양을나(良乙那), 부을나(夫乙那) 3인이 화생(化生)하여 사람이 되었는데, 오곡(五穀)의 씨앗을 심어 잘 가꾸고, 목축(牧畜)을 잘하여 무리를 이루었다. 3인이 3도(都)에 나뉘어 살면서 각각 수장(帥長)이 되었다. 고을나의 15세(世)에 고후(高厚)라는 자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신라와 통교하였다. 이때

30) 낳고 길러주는 어머니로서의 대지 개념은 수렵 민족과 농경 부족의 신화 속에서 모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렵인의 이미지에 따르면 사냥감이 되는 동물은 대지의 자궁에서 나온다. 지하 세계 혹은 춤마당에서의 무시간적 원형들이 발견된다. 농경 부족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이 발견된다. 여기서는 곡물이 씨가 뿌려지는 곳이 어머니 대지의 몸속이다. 따라서 발을 가는 것은 성행위(begetting)이며 싹이 트는 것은 출생이다. 더욱이 어머니로서의 대지 개념 그리고 재생을 위하여 자궁 속으로 재진입하는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매장 개념은 인류의 몇몇 공동체에서는 극히 초기부터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조지프 캠벨, 이진구 옮김, 『신의 가면1 원시 신화』, 까치, 2003, 85-86쪽).

3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 전라도(全羅道), 이식 역, 한국고전번역원, 1970.

에 객성(客星)이 신라에 나타났으므로 국왕이 고후를 성주(星主)라고 호칭하고, 국호를 내려 탐라(耽羅)라고 하였다.³²⁾

위의 내용은 탐라국의 기원신화인 동시에 시조신화인 셈이다. 시조들이 솟아온 장면을 보면 처음에 군장이 없었는데 삼인이 땅으로부터 솟아 화생(化生)하여 황무지에서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지은 대목에서 오늘날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상한 일(靈異)은 고려 목종(穆宗) 5년 임오 6월에 탐라산(耽羅山)에 구멍 네 개가 뚫려서 싯빨건 물이 치솟아 올랐고, 10년 정미에는 바다 가운데 산 하나가 솟아나왔다. 탐라에서 보고하니, 왕이 태학박사(太學博士) 전공지(田拱之)를 보내어 가서 조사하게 하였다. 탐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이 솟아나오는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고, 벼락치는 것같이 땅이 움직였습니다. 무릇 7주야(晝夜)가 지나서야 비로소 개었는데, 산에는 풀과 나무가 없고, 연기만이 그 위를 덮고 있습니다. 바라다 보니, 석류황(石流黃) 같기도 하여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전공지가 몸소 산 아래에까지 나아가 그 모양을 그려서 나라에 바쳤다. 속설(俗說)에 전하기를, “한라산 주신(主神)의 막내 동생(季弟)이 살아서 거룩한 덕(德)이 있었으므로 죽어서 명신(明神)이 되었는데, 마침 호종단(胡宗坦)이 이 땅을 진무(鎮撫)하고 제사를 지낼 때를 당하여 신(神)이 배를 타고 강남(江南)으로 향하였다. 신(神)이 매(鰲)로 화(化)하여 날아서 돛대 꼭대기에 올라 앉았는데, 조금 있다가 북풍이 크게 불어 호종단의 배가 난파(擊碎)되어 서쪽 지경에 침몰하니, 매가 날아서 섬의 암석(巖石) 사이로 올라갔다. 나라에서 그 신령함(靈異)을 포장(褒獎)하여 식읍(食邑)을 하사하고, 광양왕(廣壤王)으로 봉하였는데, 해마다 나라에서 향(香)과 폐백(幣帛)을 내려서 제사를 지낸다.³³⁾

위의 내용은 탐라가 외적의 침략을 받아 위태롭게 되자 한라산 신이 출현하여 탐라를 구했으므로 조정에서는 이 신을 왕으로 봉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신의 출현과 이 신이 왕으로 즉위한 과정이다. 신의 출현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은 기이한 출생화소인데 여기서 자연신

32) 허목, 『기언(記言』. 제34권 외편, 선종순(역), 한국고전번역원, 2008.

33) 국역, 『세종 지리지』, 5집, 667쪽, 한국고전문학번역원.

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산에 구멍 네 개가 뚫리어 싯빨건 물이 솟아올랐고, 바다 가운데 산이 솟아올랐다는 것이다. 조정에서 태학박사를 보내어 살펴보게 하니 탐라사람들은 ‘산이 솟아나며 움직이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신은 변신하기도 하는데 자연신에서 인격신으로 그리고 자연신으로 변신하여 섬의 암석 사이로 들어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탐라 사람들은 신의 출현을 직접 보았지만, 〈원천강본풀이〉에서는 이 모든 것을 오늘이의 입을 빌어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탐라 기원신화에서는 여느 백성들이 한라산신이 매로 변신하여 다시 암석 사이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다. 따라서 이 때의 신은 산에서 출현한 신이 매로 변신하고 외적을 물리치자 암석 사이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형 동격의 신이라 할 수 있다. 뒤에 왕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후대 역사 시대의 덧입힌 결과물로서 수직적 질서를 갖춘 왕조사회의 반영일 것이다.

〈원천강본풀이〉도 이 신화를 토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들판에서 솟아나는 것과 소녀, 그리고 부모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른 인물이 아니라 이형 동격의 신으로 추정할 수 있다. 들판, 소녀, 부모는 개별적 존재로 나타나지만 한라산신이 여러 모습으로 변신하듯이 땅신이 여러 모습으로 변신하여 시간과 사계절을 관장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난을 당하자 한라산신이 출현하여 문제를 해결했듯이, ‘원천강’의 신들도 우주 자연의 질서 즉 사계절의 순환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월적 창조주가 따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제주도 신화의 특징이다. 땅에서 솟아난 신들은 스스로 태어나거나 신이 되는 화생관(化生觀)으로 해석할 수 있다.³⁴⁾ 땅에서 솟아난 신은 여성 원리의 신화를 뜻한다. 신화적 시각에서의 생명 창조에 대한 부분은 남성이 개입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으며 아버지를 통한 수태의 비밀을 알지 못하였던 고대인들이 상상하는 생명의 잉태

34) 여기에서 화생관(化生觀)이란 천지자연이 만물을 만들어 자라게 하는 화육(化育), 소탁(所託)없이 절로 낳는 화생(化生) 그리고 변화와 조화의 의미로 해석한 글에서 따온 용어이다. (육완정, 『여성 신화 -우주와 생명의 아르케』, 『동아시아여성신화』, 집문당, 2003, 40쪽)

와 출산의 신비는 상상을 초월한 불가사의의 것이었다.³⁵⁾

신직의 수여방식에서도 지역 간 격차는 크다. 땅 중심 사고에서 자라난 신화의 주인공들은 신직을 부여하는 존재가 따로 없다. 일례로 민담인 ‘내 복에 산다’와 관련성이 있는 〈삼공본풀이〉³⁶⁾를 보더라도 주인공인 가문장아가 따로 신이 되었다는 설명이 없다. 다음은 자신을 버리고 장님이 되어 가문장 아기의 잔치에 온 부모와 딸이 상봉하는 마지막 장면이다.

거지들이 다 가버린 후에는 안방으로 청해 들이고 통영칠반에 귀한 약주한 상 가득히 차려 놓으니, 두 거지는 정신없이 먹어간다. 가문장아가 와서

“이 거지들아, 옛말이나 말해 보십시오. 들을 테니,”

“들을 옛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들었던 말이나 봤던 말이나 있으면 말하십시오.”

“들었던 말, 봤던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온 말이라도 하십시오. 들을 테니.”

“살아온 말은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오늘 오늘이여, 날도 좋아 오늘이여, 옛날 옛적...

[이제까지 풀어온 본풀이 즉 장님이 되어 거지된 과거 얘기를 노래함]

“이 술 한 잔 드십시오. 천년주입니다. 만년주입니다. 설은 어머님 아버님 제가 가문장아기입니다. 내 술 한 잔 받으십시오.”

“어! 어느 거 가문장아기!”

들었던 술잔을 탈랑하게 놓은 것이 설은 아버님 설은 어머님 눈이 팔롱하게 밝아졌구나. 개명천지가 되었구나.

위 내용에서 가문장아기는 전상신 즉 전생(前生)의 업을 관장하는 신이지만 신격으로 좌정하는 내용이 따로 없다. 〈원천강본풀이〉의 주인공인 오늘

35) 육완정, 『여성 신화 -우주와 생명의 아르케』, 『동아시아여성신화』, 집문당, 2003, 40-41쪽.

36) 〈삼공본풀이〉의 신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삼공맞이〉인데 이 〈삼공맞이〉를 〈전상놀이〉라 한다. 제주도에서 ‘전상’은 ‘스륙’이라고도 한다. 좋은 전상을 ‘상스륙’, 나쁜 전상을 ‘하스륙’이라 한다. ‘전상’은 고쳐지지 않는 버릇, 주특기, 병 등을 뜻하는 듯하고 그 어원은 ‘전생(前生)의 업보’를 뜻하는 전생인 듯하다.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 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29쪽)

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애초 신화의 원형은 사계절의 신인 오늘이가 자신의 근원 즉 원천을 찾는 것에서 끝났을 것이다.

우리 신화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뿌리에서 자라난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하늘’ 중심의 사고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땅’ 중심의 사고방식이다. 앞의 것에서는 초월자 곧 신이 하늘에 있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하늘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뒤의 것에서는 초월자가 땅속에 있고 모든 생명은 땅에서 온다고 본다. ‘하늘’을 바라보며 형성한 북방의 신화는 초월 신화와 조상신화에 두루 영향력의 자취를 남기고 있으나 ‘땅’을 바라보고 만들어 낸 남방의 신화에서는 초월 신화의 중심인 절대신화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북방의 천신사상(天神思想)은 영향력이 크고 우세하며 남방의 지신사상(地神思想)은 작고 열세하다는 뜻이다.³⁷⁾

오늘이의 존재 이유는 우주적 차원에서 시간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에 있다. 여기서 출생과 신직이 이 신화의 본질적인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서사장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상하지만 제주도 고유 신화소의 뼈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곳적 신화가 역사시대 들어와 구복여행담의 삽입과 더불어 남성 중심의 북방계 신화가 영향력을 미치고 이밖에 옥황의 신녀, 절 등 도교와 불교적 색채가 덧입힌 결과가 일제 시대 채록본 〈원천강본풀이〉라고 볼 수 있다.

4. 신화의 적층성

신화의 적층성은 역사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역사만큼이나 신화의 내용이 변화하여 겹겹이 쌓인 결과물임을 의미한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화의 전승 과정에서 민담이나 여타 다양한 사상과 융합됨은 신화의 적층성으로 해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37) 김수업, 『우리 신화와 상상력』, 『상상력의 자리찾기: 한국문화의 상상력』, 백의, 1999, 49쪽.

〈원천강본풀이〉에 민담이 삽입되었지만 고유한 신화소가 있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역동성에 주목한다면 〈원천강본풀이〉의 본질적인 성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시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인공인 오늘이는 사계절과 뗄 수 없는 긴밀한 존재이다. 이 신화가 구복여행담과 같은 유형이 아닌 것은 바로 이러한 신화소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이는 인격으로 나타나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에너지다. 사계절도 마찬가지다. 사계절의 순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단위로 운행된다. 그러므로 오늘이와 아버지, 시간과 사계절의 관계는 추상적 에너지를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이가 도달하는 여정의 끝은 사계절이 있는 곳이다. ‘원천강’은 오늘이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이지만 본질적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모여 계절로 통합되는 우주의 질서를 뜻한다. 또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것일 수도 있다. 결국 인간을 비롯하여 우주에 속한 모든 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 원리를 겪는다.

우주의 역사, 우주의 진화 과정도 구조적 차원 이동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폭발이 일어난 직후의 상태에서부터 우주가 점점 더 팽창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원의 물질세계가 형성되고, 그런 다음 생명의 세계가 형성되는 변화도 차원 이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실재하는 세계의 근원은 형체가 없는 에너지의 흐름만이 존재하는 상태가 된다. 구조적으로 그것은 가장 아래 차원의 세계이다. 모든 상위 차원의 세계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으로부터 나타난(창출된) 세계인 것이다.³⁸⁾

땅을 모태로 오늘이가 태어나고 오늘이가 부모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오늘이가 자신의 근원을 밝히고자 하는 신화 상징적 표현이다. 오늘이의 원천이 아버지이며, 아버지는 시간이 모인 사계절의 상징이며, 오늘이의 근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천강’은 오늘이가 태어난 원천인 동시에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이가 태어난 원천은 땅이다. 오늘이나 사계절이 형체가 없는 시간적 개념이라면 들판이나 원천강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

38) 소흥렬, 『자연주의적 유신론』, 서광사, 1992, 19쪽.

다. 시간과 공간이 함께 통합될 때 오늘이의 근원은 완전성을 획득한다.

시간은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 역사성은 신화의 작품 안에서 또는 밖에서 이루어진다. 작품 안에서는 작품의 변화를 말한 것이고, 작품 밖의 전승자들은 역사의 변화에 던져져 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역사적 단절 속에서도 연속적인 삶을 이어가듯이 신화도 단절과 연속을 아우르며 역동적 생명력을 획득한다. 때로는 고유성을 잃어버릴 만큼 단절의 역사를 거치지만 그렇다고 하여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오늘이가 시간과 대지의 신으로서 자신의 근원을 찾는 것은 연속성을 지니지만, 들여온 구북여행담이나 북방 신화의 영향은 단절성을 불러온다. 그러나 단절과 연속을 겪는 것이 입말로 전승하는 구비문학의 특성인 만큼 입말로 전승하는 신화의 역사성은 계속될 것이다.

5. 마무리

이 글은 〈원천강본풀이〉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우주 기원 신화로서 가치가 있는 만큼 신화의 본디 모습을 추적하여 신화의 원형을 재구하고자 하였다. 과학 문명 시대로 접어들수록 인간의 생활도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보다는 미시적이며 개별적인 문제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요인으로 〈원천강본풀이〉를 비롯한 범우주적 신화들이 개인 기복 신앙에 자리를 내어 줌으로써 전승력이 약화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문학사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원천강’이라는 용어에 관해 탐구하였다. 그 결과 이 용어는 원시 애니미즘 사고의 진화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원시 애니미즘적 사고에서 시간과 공간은 미분화 상태이지만 오늘이의 탄생을 통해 분화한 것으로 보았다. 신직과 ‘원천강’의 관계에서 ‘원천강’은 시간의 근원인 원천(原泉)으로 보았으며 그 뒤에 붙은 ‘綱’은 같은 뜻으로 전승 과정에서 겹쳐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신화의 원래 모습을 탐구하기 위해 신화 선행설의 입장에서 민담과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구복여행담이 삼화로 들어와 재편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신화와 민담의 공통점을 추려내면 남은 것은 출생과 신직 부분이다. 주인공은 자연신인 대지와 인격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다.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므로 시대를 거쳐오면서 변화한 것으로 보았다. 이 중 자연신의 출생 화소를 고유 신화소로 보았다. 이러한 추측의 근거는 제주도의 ‘당신화’나 ‘탐라국 기원설화’에서 찾을 수 있었다.

신직 좌정 방법에 있어서 천신에 의해 부여한다는 내용은 북방계 신화의 영향력이 덧입힌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옥황, 절 등 도교나 불교 같은 사상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걷어내면 남방계 고유의 특성이 드러난다. 즉 타자에 의한 부여가 아니라 화생관의 특성을 보인다.

〈원천강본풀이〉를 대상으로 신화의 원형을 재구하는 일은 신화의 역사성과 관련이 깊다. 신화는 단절과 연속을 함께 이어나가 역동적 생명력을 얻는다. 오늘이가 시간의 신으로서, 대지의 신으로 존재하며 자신의 원천을 찾고자 하는 것은 연속성을 지니지만 삽입된 구복여행담이나 또한 북방 신화의 영향력은 단절성을 불러온다. 그러나 단절과 연속을 거듭하는 것이 입말로 전승하는 구비문학의 특성인 만큼 신화의 역사성은 계속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기본자료〉

『세종 지리지』, 5집, 667면, 한국고전전문학번역원.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 전라도(全羅道), 이식 역, 한국고전번역원.

『漢韓大事典』, 民衆書林, 民衆書林編輯部.

赤松智城·秋葉隆 공저, 심우성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 上』, 동문선, 1991.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허목, 『기언(記言)』. 제34권 외편. 선종순 (역), 한국고전번역원, 2008.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단행본〉

김수업, 「우리 신화와 상상력」, 『상상력의 자리찾기: 한국문화의 상상력』, 백의, 1999.

김현선. 현용준. 강정식 저,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소홍렬, 『자연주의적 유신론』, 서광사, 1992.

육완정, 「여성 신화- 우주와 생명의 아르케」, 『동아시아여성신화』, 집문당, 2003.

장주근, 「설화편」,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조홍윤, 「한국 무(巫)의 역동적 이해」, 『상상력의 자리찾기: 한국문화의 상상력』, 백의, 1999,

조지프 캠벨, 이진구 옮김, 『신의 가면1 원시 신화』, 까치, 2003.

〈논문 및 평론〉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원천강본풀이〉, 〈세민항제본풀이〉, 〈허웅 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논문, 2002.

고은임, 「원천강본풀이연구: 오늘이 여정의 의미와 신화적 사유」, 『관악어문

연구』제35집, 2010, 201-220쪽.

김혜정,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 神名에 대한 再考를 중심으로」, 『한국 무속학』V20, 2010, 한국무속학회, 251-277쪽.

조홍윤, 「〈원천강본풀이〉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 연구」, 『남도 민속 연구』, V 23, 남도 민속학회, 2011, 409-436쪽.



〈Abstract〉

A study on the prototype of 〈Woncheongangbonpuri〉

Kwon, Bok-soon(Gy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riginal feature of 〈Woncheongangbonpuri〉 removing layers.

Before the full extent research, the study examined features and concept of godly post. In the primitive animism thinking, time and space progressed from undivided condition to divided condition. Accordingly, the evolution process of myth can be conjectured from the birth of Oneuli. On the basis of soaring ‘Oneuli’ from earth, time and space before means undivided status and after birth means the condition of division. And, the title ‘Woncheongang’ means ‘Woncheon’ (origin) of god. Surfix ‘Gang’ has similar meaning with ‘Wonchon’ which is used ambiguously.

From the perspective of myth preceding theory, the study attempted to approach the prototype of myth by comparing with similar folktal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contents of bless wishing travel was partially inserted. Except for this, the prototype of myth could be found in birth. Just as the birth legend is widely shown in ‘Dangsinhwa’ and ‘Tamla nation origin myth’ in Jeju, it reflects the earth centered idea which is a feature of southern myth.

In the process of enthronement of godly post, that the heroine became the godly lady of Okhwang or the parents appeared seems to be modified by the influence of northern myth in the post-historic era. Except for this, the enthronement to the god post by the heroine, it is similar to the enthronement of the heroine in 〈Samgongbonpuri〉. Even though ‘Gameunjangagi’ did not receive godly post, but exists as Jeonsangsin, it was assumed that ‘Oneuli’ existed as a god by reaching ‘Woncheongang’ a destination.

The reconstruction of the prototype of 〈Woncheongangbonpuri〉 is based on historicity of myth. Historicity accompanies continuity and severance. As the relation between ‘Today’ and ‘Four-season’ contains the principle of circulation of cosmos, it shows continuity. Except for this, any transformed folktale or northern element work as severance.

배 달 말(56)

Key words: Animism, nature, human, non-division, division, historicity,
severance, continuity

논문 접수 : 2015년 4월 23일

심사 완료 : 2015년 6월 4일

게재 확정 : 2015년 6월 8일

K C I